

서지혜 “아구선수 윤성환과 열애, 사실 아니다”

연기자 서지혜와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윤성환이 19일 열애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서지혜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이날 두 사람이 올해 초 지인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뒤 교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서지혜 측은 보도 직후 이를 즉각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지혜

윤성환

‘워너원’ 7월 본격 활동…‘태풍의 눈’ 예고

강다니엘·박지훈 등 11명 1년간 활동 멤버별 팬덤 경쟁·CF 섹도 대박 예상 YMC “첫 앨범 8월께…완성도 중요”

케이بل채널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를 통해 탄생한 남성 프로젝트그룹 워너원(Wanna One)은 아이돌 시장에 강력한 태풍이 될 수 있을까. 엑소와 방탄소년단, 세븐틴, 갯세븐 등 현재 남성 아이돌 그룹 시장을 주도하는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워너원이 이뤘을 성과에 가요계의 관심이 쏠린다.

16일 최종회에서 1위를 차지한 MMO엔터테인먼트 소속 강다니엘을 비롯해 박지훈(마루기획) 이대휘·박우진(이상 브랜뉴뮤직) 김재환(무소속) 오성우(판타지오) 라이관린(큐브엔터테인먼트) 윤지성(MMO) 황민현(플레디스) 배진영(C9엔터테인먼트) 하성운(아더엔터테인먼트)이 2~11위에 올라 워너원 멤버로 낙점됐다. 이들은 에이리 소속사 YMC 엔터테인먼트의 매니지먼트 속에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시즌1의 I.O.I와 달리 워너원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각 소속사의 팀에서는 활동하지 못한다.

I.O.I가 지난해 MAMA, 골든디스크대상, 서울가요대상 등에서 신인상을 받는 등 걸그룹 시장의 다크호스였다면, 워너원은 충성심 강한 여성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어 아이돌 시장을 갈라칠 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조집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프로듀



11명의 워너원 멤버를 탄생시킨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 파이널 무대. 워너원은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한부 활동을 벌인다.

사진제공 | 엠넷

스101’은 4월 첫 방송부터 각 멤버별로 팬덤이 생겨났다. 하지만 팬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정투표 논란까지 일었다. 지하철 및 신문 광고 등을 경쟁적으로 펼치며 자신이 응원하는 멤버가 발탁되도록 호소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방송 중 발표한 노래 ‘네버’ ‘헨즈 온 미’ ‘을 웨이즈’ 등은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프로듀스101’에 참가했던 뉴이스트는 4년 전 발표한 ‘여보세요’가 멜론 실시간 차트 4위까지 오르는

역주행 현상으로 데뷔 5년 만에 뒤늦게 빛을 보고 있다.

유명 작곡가들도 대박은 당상이라는 생각에 YMC엔터테인먼트와 CJ E&M 측으로 경쟁적으로 곡을 보내기도 했다. 광고계 러브콜 역시 뜨겁다. 워너원이 정식 데뷔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여름 엑소 외에 출사표를 낸 남성그룹이 없어 워너원은 하반기 남성 아이돌 시장에 안착할 기회를 맞고 있다.

워너원은 7월1·2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프로듀스101 피날레 콘서트’에 출연한다. 하지만 첫 앨범은 8월 중순이 지나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곡 녹음과 춤 연습, 뮤직비디오 촬영 등 작업 일정이 쪼들 않기 때문이다. YM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완성도가 중요하다. 서둘러 내지 않고 많은 시도와 깊은 고민의 과정을 거쳐 첫 앨범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아름다운 기부, 팬들과 공유하는 ‘공유’

바자회수익금 2848만원 전액 기부 팬들은 공유 생일날 별도기부 계획

배우 공유가 최근 펼친 자선 바자회 수익금을 팬들과 공동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공유는 지난달 27일 서울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 최근 바자회 수입과 지출 등 모든 정산을 끝낸 공유 측은 총 2848만원을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가톨릭 성모병원 4곳에 기부하기로 했다. 만 4세에서 18세까지 국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족 등 기부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유 측은 조만간 가톨릭 성모병원 발전기금 담당 부서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기로 했다. 앞서 공유는 “팬들과 함께 모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자선 바자회 입장권과 MD상품 등을 포함해 소장하고 있던 애장품 등을 경매에 붙여 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뒤이어 공유 측은 자선 바자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수익과 지출 내역을 공식 팬카

페 ‘유엔아이’를 통해 팬들에게 공개했다. 기부처를 가톨릭 성모병원으로 지정한 것도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제외되는 금액 없이 전액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기부금 사용 내역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는 자선 바자회에서 선보였던 각종 MD상품에 대한 팬들의 추가 구매 요구가 잇따르면서 2차 제작에 들어갔다. 2차 MD상품으로 생긴 수익금 역시 같은 곳에 추가로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팬들도 나섰다. 팬들은 공유의 생일인 7월10일에 맞춰 기부금을 별도로 모아 가톨릭 성모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공유

문광부 후원 가온차트 “지드래곤 USB, 앨범 아니다”

앨범 집계서 제외…음악방송 불이익 예상 YG엔터 “빠른 기술 발전 외면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가온차트 측이 지드래곤 USB앨범을 두고 “앨범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일 USB 형태로 선보인 지드래곤 솔로 앨범 ‘권지용’은 가온차트의 앨범 부문 집계에서 제외되고, 수록곡은 다운로드 차트에서 소비량이 집계된다. 가온차트의 앨범 판매량을 순위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일부 음악방송에서 지드래곤의 상대적 불이익도 예상된다.(본지 6월15일자 17면 보도 참조)

가온차트 운영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음콘협) 측은 19일 “저작권법상 지드래곤 USB는 ‘음반’에 해당될 수 있지만, 가온차트의 ‘앨범’은 ‘음반 유형물에 고정된 것’만으로 한정한다. 지드래곤 USB는 전송(다운로드 서비스)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음원까지 ‘음반’으로 정의하게 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온차트의 디지털 및 다운로드 차트와 앨범 차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온차트 측은 USB에 음원이 담긴다면 이전 없이 ‘앨범’으로 인정하겠지만, 지드래곤 USB는 음악콘텐츠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앨범’으로 볼 수 없



지드래곤 USB 앨범

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드래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온차트 의견은 존중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집계 기준”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YG 측은 “지드래곤 USB앨범은 링크뿐 아니라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이며, 음악뿐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방식”이라며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IT와 기술발전 속도는 세상이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카세트테이프와 CD로 음반 판매량 집계 기준을 한정하려는 건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온차트 측은 지드래곤USB가 담긴 화두에 지지를 나타내 향후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가온차트 측은 “향후 문제부, 대중음악산업계 등과 충분히 상의해 새로운 차트 카테고리 개발 등 뉴미디어 상품이 보다 일관성 있게 차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주요 일간지에 복고풍 광고…‘옥자’ 눈에 띄네

2000년대식 카피·개봉극장 계계 누리꾼들 SNS로 공유하며 호응

19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영화 ‘옥자’의 ‘복고풍’ 광고가 화제다.

‘옥자’의 국내 극장 배급사 NEW 등은 이날 주요 일간지에 영화의 29일 개봉을 알리는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는 흑백의 이미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의 카피와 함께 개봉 극장을 알리는 형식을 지니 이제는 사라진 과거 영화 지면광고를 연상케 해 눈길을 모은다.

광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映畫’ ‘전 세계 제일의 슈퍼돼지 옥자를 구하라!’ ‘뉴·요크로 납치된 내 친구 옥자를 찾기 위한 산골 소녀 미자의 글러벌 어드벤처!’ 등 향수를 자극하는 표현의 카피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서울 대한극장과 서울극장, 씨네큐브 광화문, 인천 애관 극장, 대구 MMC만경관 등 ‘옥자’를 개봉하는 전국 70여개 극장의 이름을 하단에 게재했다.

이 같은 방식은 각 지역의 소규모 멀티플렉스 극장 및 단관극장이 여전히 적지 않은 관객을 불러 모으며 활발히 영업했던 2000년대 초반까지 존재한 형식이다. 당시까지 관객은 신문에 실린 광고 속 개봉 극장을 확인하고 영화를 관람했다. 물론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영화 ‘옥자’ 포스터

서비스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개국에서 29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시 공개하면서 한국 극장에서도 개봉기로 했지만 CJ CGV 등 국내 대기업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들이 반발해 개봉 및 상영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영화를 더 널리 알리려는 ‘교육지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번 ‘옥자’ 광고가 지나간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추억을 자극한다는 시선이 많다. 실제로 누리꾼은 해당 광고를 SNS에서 공유하며 화제에 올리고 있다.

영화 ‘옥자’는 슈퍼돼지 옥자와 산골 소녀 미자의 모험과 우정을 그린 이야기다. 19일 오후 5시 현재 9.6%의 예매율(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이는 박스오피스 1위 ‘미이라’를 앞지른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아들 학폭 연루 윤순하에 드라마 하차 요구



윤순하

연기자 윤순하의 초등학교 아들인 대기업 총수의 손자 등과 함께 같은 반 학생을 집단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순하의 KBS 2TV 드라마 ‘최고의 한방’ 하차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드라마 제작진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윤순하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신중히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순하는 자신의 아들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자 해명을 내놔다 여론의 비판을 받아 18일 다시 사과했다.

잠적설 AOA 멤버 초아, 7월1일 팬사인회



초아

잠적설에 휩싸였던 걸그룹 AOA 멤버 초아가 7월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쇼핑몰에서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는 모 스포츠 브랜드의 팬 사인회에 참석한다. 초아는 3월 AOA 단독 콘서트 이후 팀 활동에서 빠진 채 휴식을 가지면서 잠적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 사인회는 초아가 콘서트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서는 공개 행사다. 앞서 이달 초 초아는 설현, 혜정 등 일부 멤버와 지인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함께 부르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내달 초 내한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톰 홀랜드가 다음달 초 내한한다. 톰 홀랜드는 영화 홍보를 위해 존 왓츠 감독과 함께 내한해 7월2일 레드카펫 행사, 3일 기자회견 등을 벌일 예정이다. 7월5일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이 세상을 위협하는 악당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블록버스터다. 연기와 노래 등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보여온 톰 홀랜드는 영국의 차세대 훈남 배우로 알려지면서 국내 팬들에게도 관심을 얻고 있다.

가수 조덕배, 3년만에 공식무대 나서

가수 조덕배가 3년 만에 가수로 공식 무대에 나선다. 조덕배는 유리상자, 봄여름가을겨울, 권인하, 강인원, 이치현, 추가열, 최성수, 전유나, 박강수, 김명상 등 ‘7090’ 스타 가수들과 함께 7월28일~30일 대구시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2017 대구포크페스티벌에 출연한다. 조덕배의 이번 무대는 2014년 9월 EBS ‘스페이스 공감’ 이후 3년 만이다. 조덕배는 2014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되고 이혼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홍상수 감독 ‘그 후’ 전세계 65개국에 판매

홍상수 감독의 신작 ‘그 후’가 전 세계 65개국에 판매됐다. 19일 해외배급사 확인컷에 따르면 ‘그 후’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지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그리고 브라질 등 남미 지역에 판권을 판매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7일 개봉했다.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인 ‘그 후’는 7월6일 국내 개봉한다.

편집 | 최혜경·김형조 기자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랭킹 6월 19일 기준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리니지2 레볼루션	Netmarble Games
2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3	세븐나이트 for Kakao	Netmarble Games
4	데스티니6	Netmarble Games
5	클래시 로얄	Supercell
6	FIFA ONLINE 3	NEXON Company
7	반지	ENP GAMES Co.
8	데스티니 차일드 for Kakao	Next Floor Corp.
9	듀오리진	Webzen Inc.
10	피망 포커	NEOWIZ